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

이 희 경 김 재 환

한양대학교 교육학과 한양대 의대 신경정신과

본 연구에서는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역할수용 처치 집단이 역할수용무처치 집단에 비해 공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과 개인의 분리 지표로 정보회상오류량과 동조를 사용하여 역할수용처치가 역할과 개인의 분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역할수용처치 집단이 역할수용무처치 집단에 비해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또 다른 역할과 개인의 분리지표인 동조에서 보면, 집단 따돌림 의견제시에서 따돌림시키는 아이를 지지하는 입장이 주어져도 역할수용처치 집단은 역할수용무처치 집단에 비해 잘 동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역할수용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역할과 개인의 분리 지각이 공감을 매개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역할과 개인의 분리지표인 집단내 오류량을 통제했을 때 역할수용에 따른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역할과 개인의 분리가 역할수용과 공감적 반응간의 매개변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역할과 개인이 분리되고 그것에 의해 공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공감(empathy)이란 타인의 감정과 심리상태, 혹은 경험을 마치 나의 것처럼 느끼는 것으로서 다른 사람의 내적 경험을 매순간 함께 느끼고 인지하는 능력에 기초를 두는 정신 내적 현상이다. 공감은 Rogers가 심리치료에서 치료와

변화의 핵심조건으로 그 중요성을 강조한 이래로 오랫동안 심리치료자나 상담심리학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지녀왔다(Barrett-Lennard, 1981; Gladstein, 1977, 1987; Rogers, 1957). 이렇게 상담에서 공감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실제 상담장

면에서 공감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고, 또한 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들도 많이 개발되어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공감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개발한다거나 공감의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은 상담의 효율성이나 의사소통을 얼마나 향상시키는가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왔기 때문에 공감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산물(outcome)'에 관심을 두었을 뿐, 왜 그와 같은 산물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process)' 즉, 공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공감을 하면 어떻게 타인의 심적 상태를 체험하게 되는가? 라는 본질적인 물음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이회경, 송수민과 이수원, 1992).

이제까지 이루어진 공감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비록 공감이 상담 과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 대상이 되어 왔지만, 공감은 치료적 변화를 위한 필요충분조건이 아닐 수도 있으며(Gladstein, 1983), 더 나아가서 상담에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연구도 있다(Lambert, DeJulio와 Stein, 1978; Parloff, Wascow와 Wolfe, 1978). 뿐만 아니라 Bergin과 Suinn(1975)처럼 공감이 인간중심 상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적 변화의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공감에 관한 연구가 이처럼 서로 다른 결과를 나타내는 이유는 공감의 측정 방법상의 문제와 더불어 공감이 일어나는 상담 과정 자체에 관한 심층적 분석 없이 공감을 곧바로 상담의 종결 성과와 관련시키려고 했기 때문이다(Barkham와 Shapiro, 1986). 이러한 이유로 공감에 관한 연구를 위해서는 공감을 측정하는 기법의 개발, 공감과 상담 과정 자체의 관계를 연구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최근 Sexton과 Whiston(1994)도 “공감의 정의와

기제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으며, “연구자들 간에 이에 관한 일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Moore, 1990)”고 하였다. Duan과 Hill(1996)도 공감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치료적 변화에 필요한 경험으로 공감의 역할을 검증하거나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였다. 그들은 공감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공감 연구의 이론적인 혼란과 방법론적인 약점을 극복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달심리학이나 사회심리학에서 방법론적인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공감의 효과나 산물보다는 공감이 일어나는 인지적 과정이 탐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다.

Mead(1934)는 공감을 ‘타자의 역할을 취해 보고 대안적인 조망을 취해 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공감이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다. 그에 따르면 역할수용을 통한 ‘사회적 공감(social empathy)’의 획득은 타인의 행위를 예측하고 적절한 반응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줌으로써 대인관계에서의 상호작용을 촉진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그는 공감의 기본요소로 역할수용 행동을 강조함으로써 공감이 인지적인 행위이며, 공감적 과정은 타인의 태도와 행동을 예측하는 기제라는 점을 분명히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관점에서 보면 공감은 ‘인지적인 기능(cognitive skill)’ 또는 대인관계에서의 ‘예언능력(interpersonal predictive ability)’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Chandler(1974)는 공감을 ‘역할수용을 통해 자기중심적 조망으로부터 벗어나 타인의 입장에 설 수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정의하였다. 공감의 정의적 측면을 강조한 사람들 중 가장 대표적인 Rogers(1957)도 공감에서의 인지적 측면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였다. 그는 “공감이란 한 사

람이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지각 세계 안에 들어가 그 속에서 철저하게 익숙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민감해지는 것, 순간순간 다른 사람 내부에 흐르는 의미를 느끼며 그의 삶 속에서 일시적으로 사는 것으로, 그 사람이 거의 깨닫지 못하는 의미까지도 감지하는 것이다.”라고 하여 ‘마치 ~처럼’이라는 특성이 망각되면 그 상태는 동일시가 되어 버리므로 공감을 할 때 ‘마치 ~인 것처럼’이라는 인식을 할 수 있는 인지적 능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공감 반응은 인지적인 측면이 선행되어야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Iannotti, 1978).

공감의 인지적 요인으로 역할수용에 대해 Flavell(1968)은 역할수용을 “자기와 타인 사이의 상호관계를 타인의 눈을 통해 타인의 관점으로 이해하는 능력”이라 하였다. Hudson(1978)도 역할수용을 “타인의 심리적 특성을 명확하게 추론하고 다른 사람의 조망을 그 자신의 조망과 통합하는 능력”이라 정의하였다. 그는 역할수용을 타인의 입장이 되어서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여 타인을 이해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Selman(1971)은 역할수용의 내용과 과정을 구체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는 “역할수용이란 타인의 능력, 속성, 기대, 감정, 잠재적 반응을 추론하는 능력으로 자신과 타인의 관점을 구별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역할수용이란 자신과 타인의 관점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타인의 입장을 취하여 타인의 생각을 추론하고, 지각하는 인지 능력을 의미한다. 이처럼 역할수용을 통한 공감이 타인의 사고, 느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언하는 것으로 볼 때 공감은 정신 내적인 활동이 되고 인간의 행동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

한편 공감의 인지과정에서 공감이 어떠한 과

정을 통해서 향상되는가의 문제는 공감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저해되는가와 같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하여 Keef(1976)는 공감을 저해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고정관념이 공감을 저해한다고 하였다. 고정관념(stereotype)이란 특정집단이나 사회적 범주에 속한 사람들에 대해 갖는 개인의 신념이다. 이런 고정관념적 처리는 정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장점도 있지만 타인을 과잉단순화하는 문제점도 있다. 따라서 이 고정관념으로 타인의 인상을 지각할 때 과잉 단순화되어, 그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언제나 고정관념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타인을 범주화시켜 지각할 때 고정관념에 의해 판단하게 된다(Allport, 1953).

고정관념은 대상을 범주화하여 지각할 때 나타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Tajfel, 1959). 타인을 범주화하여 지각한다는 것은 개인적 특성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기보다 역할의 특성으로 그를 이해하는 것이다. 이 때는 타인의 역할에 구속되어 개인적 특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

또한 대인지각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개인을 집단으로 범주화하게 되면 집단내의 성원들에 대해서는 더 동질적인 특성을 갖는다고 지각하게 되거나(Jude와 Park, 1988; Linvill, Fisher와 Salovey, 1989), 범주화된 두 집단간 차이를 과장하여 지각하거나, 같은 범주내에 속한 개인들이 그 범주에 맞는 속성을 더 갖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ecord, 1959).

범주화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이수원과 서미(1996)의 연구도 범주화 조건에서는 성역할 고정관념으로 상대방을 지각하여 개별적 특성을 무시하였고, 이러한 무시가 개인에

대한 공감을 저해하는 기본적인 장애요인으로써 작용하는 것임을 보여주었다.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에 범주화됨에 따라 상대방에 대한 공감적 이해수준도 낮아지고, 상담장면에서의 상담효율성도 떨어진다는 하정희(1998)의 연구도 이러한 범주화가 타인이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상담장면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에 범주화되어 있을 때 상담자는 내담자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문제있는 사람'으로써 내담자의 정체를 동일시하게 되고 이로 인해 내담자 개인의 특성을 보지 못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상담자가 자신을 '상담자'라는 역할에 동일시함으로써 내담자를 '내담자' 즉, '문제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게 되고 그리하여 상담자는 내담자를 그의 개인적 특성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 역할간의 기대차이가 나타나며 이것이 공감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이런 타인이해 과정에서 나타나는 범주화 지각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최근에 이수원(1996)은 그것이 역지사지(易地思之)로 가능하다고 하였다. 역지사지, 즉 역할수용(role-taking)이란 글자 그대로 타인의 처지 또는 역할에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타인의 처지나 역할에 서게 되면 이제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즉 이제까지 타인의 실체로 간주했던 그의 모습이 사실은 그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으며 '개인'이 아님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지사지를 통해서 타인의 역할이 되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 중의 하나는 자기도 그와 같은 역할에 놓였더라면 그가 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렇게 역지사지는 자기와 상대방의 행동이 각자가 처한 처지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인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만드는 기

제인 것이다. 이 기제는 자기와 타인에 대한 지각에서 역할과 개인을 분리해서 지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이렇게 역할수용을 통해서 역할과 개인을 분리 지각한다는 것이 공감의 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역할수용은 그 동안 동서양을 막론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과정에서 핵심기제로 인식되어 왔다. 사회학자 Mead(1934)는 사람들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역할수용의 중요성을 최초로 주목하였다. 그는 인간의 모든 상호작용이 역할수용을 통한 타인에 대한 이해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역할수용은 다른 사람과 처지를 바꿔 놓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타인의 처지나 역할에서 서게 되면 이제까지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된다. 즉 이제까지 타인의 실체로 간주했던 그의 모습이 사실은 그에게 부여된 '역할'이었으며 '개인'이 아니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역할수용을 통해서 타인의 역할이 되어 봄으로써 얻게 되는 체험중의 하나는 자기도 그와 같은 역할에 놓였더라면 그가 한 행동과 같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역할'과 '개인'은 모두 개인의 자아정체를 구성하는 부분들이다. Turner(1985)는 개인의 자아정체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았다. 하나는 개인정체(personal identity)로서 개인의 성격, 지식, 또는 신체적 특징과 같은 그 개인에게 고유한 특성들에서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다른 하나는 사회정체(social identity)로서 개인이 속한 집단이나 범주의 구성원 중의 일원으로서 얻어지는 자아정체이다. "나는 키가 크다" "나는 유별나다"와 같은 것은 전자에 속하는 것이며, "나는 남자이다" "나는 의사이다"와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하는 것이다.

이수원(1993)은 개인의 자아정체가 개인정체

로 동일시될 때에는 타인의 자아정체도 개인정체로 동일시하여 지각하고, 개인의 자아정체가 사회정체로 동일시될 때에는 타인의 자아정체도 사회정체로서 지각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 현상이 대인지각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자아중심성 현상이므로 '사회적 자아중심성'이라고 이름 붙일 수 있다고 하였다.

개인의 자아가 이 두 정체 중에 어떤 정체로 동일시되는가는 상황에 따라서 수시로 바뀐다. 전쟁 중에 적군과 만났을 때는 '적군'과 구별되는 '아군'으로서의 사회정체로 자기를 동일시하지만, 길거리에서 친한 친구를 만났을 때는 '나'와 구별되는 '나'로서의 개인정체로 자기를 동일시한다. 개인의 자아가 개인정체와 사회정체 중 어느 것으로 동일시되는가에 따라 그의 행동도 완전히 달라진다. 개인의 정체가 사회정체로 동일시될 때에는 개인정체로 동일시될 때 나타나는 인격적이고 개성적인 행동은 사라지고, 몰인격적이고 탈개성적인 행동이 나타나게 된다. 이 때 개인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그 가속한 사회범주의 목표이다. 사회범주의 목표가 곧 개인의 목표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수원(1991)은 사람들이 특정한 역할관계에 맥락화되어 얻어진 타인의 모습을 그의 실제의 모습으로 절대화하여 지각하는 역할맥락화 현상에 주목하였다. 역할맥락화는 특정한 역할관계에서 얻어진 상대방의 모습을 그의 실재의 모습으로 지각하는 것이다. 예컨대, 며느리가 자기의 입장에서 본 시어머니의 모습을 시어머니 원래 실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딸의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역할맥락화는 지각자가 자신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로 동일시할 때 일어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역지사지는 타인의 자아정체

에서 사회정체와 개인정체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정체를 개인정체로 동일시하는 오류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타인의 정체를 개인정체로 동일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다. 역지사지를 통해서 자기의 사회정체를 반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동안 절대적으로 옳다고만 생각했던 자기의 주장과 절대적으로 그르다고만 생각했던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며 주어진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공감의 인지적 과정, 즉 공감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는 개인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꾸어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공감의 인지적 요소인 역할수용 경험을 통해서 개인은 자신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꾸어 지각하고 타인을 범주적으로 지각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지각하게 된다. 즉 타인을 고정관념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보다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감 연구들이 공감을 하게 되면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되고, 이타행동이 증가되는 등 공감이 가져오는 효과에 초점을 두었을 뿐 무엇이 공감을 가져오고 어떻게 공감이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역할수용을 통해서 범주화로 인한 개인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꾸어 역할과 개인을 분리하게 해줌으로써 타인을 보다 잘 이해하게 된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을 기초로 본 연구에서는 역할수용처치를 함으로써 역할과 개인이 분리되고 공감적 반응에서 변화가 생기는지를 알아보고, 역할수용처치가 공감에 미치는 효과가 역

매개변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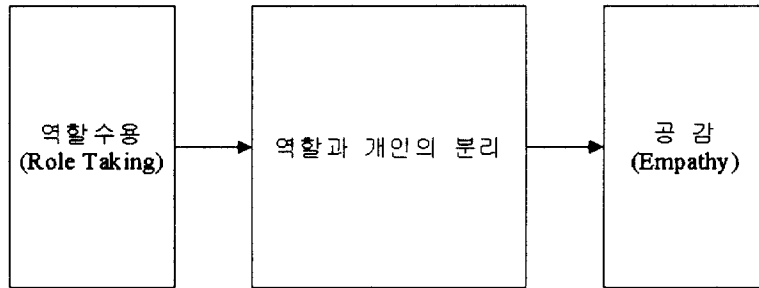


그림 1. 역할수용과 공감의 과정

할과 개인의 분리로 매개되는가를 밝혀보려 하였다. 연구의 기본적인 틀은 그림 1과 같다.

방 법

1. 피험자

서울시 소재 중학교 3학년 여학생 58명이 본 실험에 참가하였다.

2. 절 차

실험은 두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첫 단계에서는 집단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사례를 주고 개인의견서에 집단따돌림 현상에서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과 따돌림 시킨 사람의 입장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도록 하게 하였다. 이 때, 피험자들을 두 집단으로 구분하여 한 집단에게는 역할수용처치가 주어졌다. 역할수용처치는 집단따돌림에 대한 사례를 읽고 따돌림 시키는 입장을 지지하는 의견서를 참고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후 실험자가 “만약 여러분이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 된다면 어떤 생각이나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은지 생각해 보

시다.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느낌을 제시된 사례 하단에 적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의견은 다음 실험의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제시된 사례의 경우처럼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에 처한다면 어떤 것 같은지 생각해 보고 다음 의견서에 여러분의 생각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언어적으로 지시한 형태로 역할수용 처치가 이루어졌다. 다른 한 집단에게는 별도의 지시 없이 따돌림 현상에 대한 의견을 측정하였다. 두 번째 단계에서 역할수용 처치유무에 따른 공감수준과 역할과 개인의 분리지표로 정 보회상오류량의 종속변인을 측정하였다.

1 단계 : 집단 따돌림 사례 제시

공감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을 회수한 후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집단 따돌림(왕따) 현상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지를 제시하였다. 여기서 집단 따돌림에 관한 사례를 제시하고 **따돌림 당한 사람의 호소인 입장 ①**을 지지하는지, **따돌린 사람의 이야기의 입장 ②**를 지지하는지를 응답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사례와 개인의견서의 예는 다음과 같다.

입장 ①

“친구가 아무도 없어요. 놀아 주지도 않고..... 지나가면서 툭툭 치고 막 놀리고 내 물건 던지고..... 저는 그냥 피해요. 화장실 가고 다른 생각하고, 혼자 있게 돼요. 그게 마음이 편하니까요. 왕따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맞을까봐 불안하고. 아이들이 내 주위를 지나가기만 해도 막 불안해요. 저번 시험 때는 나는 컨닝도 안 했는데 지네들이 하고 내가 했다고 선생님께 고자질했어요. 내가 너무 착해보였나봐요..... 처음에는 싸워 볼까도 했는데, 겁도 나고 해서 그냥 때려도 이해해 주는 척했거든요. 어떤 때는 막 두들겨 패 주는 공상을 해요. 그래서 그 놈들이 나 빼고 다 죽었으면, 폭발해 버렸으면..... 지구가 충돌해서 없어 버렸으면.....”

입장 ②

“나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은 하지만..... 재는 좀 고생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학교생활하면서 온갖 잘난 척은 다하고 다른 애들은 무시하면서 쓸 데 없이 나서기 좋아하고 하여튼 밥맛이라니깐요. 도저히 잘해 줄려도 봐 줄게 없어요. 그런 애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런 애들은 왕따를 좀 당해서 충격을 받아야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다 개들을 위한 거라니깐요.”

피험자들이 이 사례를 거의 다 읽어 갈 때에, 실험자가 실험참가자들에게 앞서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의 개인의견서를 제시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답하는데 참고하도록 하였다. 이 의견서는 모두 따돌린 사람을 지지하는 의견서들이었다.

3. 종속변인 측정

공감 : 공감의 측정은 Carkhuff(1969)의 척도를

응용하여 본 연구자가 제작한 따돌림에 관한 호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였다. 제작된 공감 문항은 상담전문가 2인이 평정하였다.

친구관계에서 경험할 수 있는 대화내용에 관한 5개의 문항을 제시하여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때 대화의 소재는 친구관계나 따돌림에 관한 내용들이다. 문항의 형식은 구체적인 대화상황에서 언어적 표현을 제시하고 응답하도록 하였다.

반응의 예들은 1수준에서 5수준별로 모두 다섯 개의 반응을 제시하였다. 여기에서 1수준은 낮은 반응이고 5수준은 가장 높은 공감 반응을 의미한다. (예, **아이들이 왜 나를 피하는지 모르겠어. 나를 제수 없는 애 취급을 하는 것 같아.** ① 야, 넌 별거 다 신경 쓴다. 애 신경 끊어! ⑤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싶은데 네 마음을 친구들이 잘 몰라줘서 속상하지.)

정보회상오류량 :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을 지지하는 성원들의 발언과 시키는 사람의 입장을 지지하는 발언을 제시하고, 발언자를 회상하게 하였다. 이 정보회상 오류량은 기존의 연구(Taylor, Fiske, Ertcoff 및 Ruderman, 1978; 위광희, 1998)에서 역할과 개인의 분리 지표로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정보회상에서 보이는 오류량으로 역할과 개인의 분리를 측정하였다. 역할수용을 경험한 사람들은 집단 범주보다는 개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에 집단내 오류량이 적을 것이며, 역할수용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역할수용을 경험한 사람들보다 집단내 오류량이 클 것이다. 오류량의 계산방식은 Taylor등(1978)의 방식에 따라서 오류량을 산출하였다.

제시된 의견의 예들은 따돌림을 당한 사람의 지지하는 발언자 각 4명과 따돌림 시킨 아이를 지지하는 발언자 4명의 주장 8가지이며, 이 들

----- 절취선 -----

개인의견서

만약 **입장 ①**과 **입장 ②**의 친구가 똑같이 호소해 왔을 때, 여러분의 생각은 어느 쪽 입장과 가깝습니까? 두 친구에게 합해서 100점이 되도록 점수를 주십시오.

나는 **입장 ①**을 지지한다. ()

나는 **입장 ②**를 지지한다. + ()

1 0 0

판정자 당신의 번호 : () 씨인

그림 2. 집단 따돌림에 대한 입장지지 의견서

주장이 누구의 발언인지를 회상하게 기록하는 것이다(예, 의견제시자(가아) : 따돌리는 원인이 피해학생의 성격적 결함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따돌림 자체가 정당화 될 수 없다 / 의견제시자(비이) : 이기적이고 알미운 행동 등 따돌림을 받을만한 행동을 하기 때문에 따돌리는 것이다).

동조 : 피험자들이 왕따 사례를 읽고 먼저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여 자신의 의견을 기록하는 개인의견서에는 따돌림을 당하는 입장①을 지지하는지, 따돌림 시키는 입장②의 친구를 지지하는지를 정하는 것이다. 입장②에 지지하는 정도가 많을수록 동조하는 것이 된다.

하고 이어 개인과 역할의 분리지표에 관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1) 공감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실험에 참여한 피험자를 두 집단으로 나누어 역할수용처치를 실시하고 공감 수준과 개인과 역할에 대한 분리지표를 측정하였다. 먼저 집단에 따른 실험처치 후에 측정된 공감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에서 보듯이 공감에 대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7)=6.67, p<.01$). 이 결과는 역할수용처치집단($M=3.52$)이 역할수용무처치집단($M=2.96$)에 비해 공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할수용은 공감을

결 과

1. 역할수용처치가 역할과 개인의 분리 및 공감에 미치는 영향

역할수용처치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역할처치가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제시

표 1. 집단별 공감의 평균(SD)과 F검증 결과

집 단	공감수준	F
역할수용 처치 (n=28)	3.52(.70)	6.67*
역할수용 무처치(n=31)	2.96(.93)	

* $p<.01$

증가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긍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역할과 개인의 분리

개인과 역할의 분리 지표는 정보회상 오류량과 동조를 이용하였다. 먼저 집단별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의 평균과 F검증 결과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에서 보듯이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57)=7.87, p<.01$). 이 결과는 역할수용처치 집단($M=1.82$)이 역할수용무처치집단($M=2.61$)에 비해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역할수용이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개인과 역할의 분리의 또 다른 지표는 동조였다. 동조는 역할수용을 경험한 집단이 개인과 역할을 분리하여 지각하는지를 의견서의 입장 지지로서 측정되었다. 여기서 참고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모두 따돌림 시킨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조작하여 역할수용처치 유무에 따라서 입장지지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감수준에 따라 따돌림에 대한 동조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값을 표 3에 제시하였다. 여기서 점수가 높을수록 제시된 의견서에 동조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지지하는 것

표 2. 집단별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의 평균 (SD)과 F검증 결과

집 단	오류량	F
역할수용 처치(n=28)	1.82(.94)	7.87*
역할수용 무처치(n=31)	2.61(1.20)	

* $p < .01$

표 3. 집단별 따돌림에 대한 동조의 평균(SD)과 F검증결과

집 단	입장지지도	F
공감 상(n=27)	45.74(7.64)	4.29*
공감 하(n=30)	38.67(15.32)	

* $p < .05$

을 의미한다.

표 3의 평균값에 대한 F검증을 실시한 결과, 공감수준에 따라 입장지지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F(1,55)=4.29, p<.05$).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따돌린 아이를 지지하는 개인의견서가 제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제시된 의견서에 동조하지 않고 따돌림을 당한 아이를 지지한 것이다. 이에 비해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제시된 의견서와 유사하게 따돌린 아이의 입장을 지지하였다. 다시 말해서 공감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쉽게 동조되지 않는 반면에 공감수준이 낮은 사람들은 쉽게 동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역할수용과 공감과의 관계에서 역할과 개인의 분리의 매개효과

위에서 검증되었던 것처럼 역할수용 처치에 따라 나타나는 역할과 개인의 분리가 공감을 매개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역할수행처치 후에 측정된 역할과 개인의 분리지표를 공변인으로 하여 공감에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였다. 먼저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 집단간 정보회상 오류량, 공감간의 상관을 산출하여 표 4에 제시하였다.

표 4.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과 공감의 상관계수(r)

	집단간	공감
집단내	-.07	-.36*
집단간		.15

* $p < .01$

표 4를 보면, 공감과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 간에는 부적상관($r = -.36, p < .01$)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감이 높을수록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을 나타낸다. 집단간 정보회상 오류량과 공감의 상관은 정적 방향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는 듯하였다.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는 역할과 개인의 분리로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과 역할수용처치를 독립변인으로 하고 공감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표 5에 제시하였다.

표 5에서 볼 때, 역할과 개인의 분리 지표인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은 공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B = -.29, T = -2.22, p < .05$), 역할수용처치의 BETA값은 $-.22$ 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역할과 개인의 분리 효과를 배제하였을 때, 역할수용 그 자체는 공감에 유

표 5. 공감과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의 중다회귀분석

	B	BETA	T
집단내 오류량	-.22	-.29	-2.22*
역할수용 처치	-.39	-.22	-1.74
	$R^2 = .18$	$df = 2/56$	$F = 6.03^{**}$

* $p < .01$ ** $p < .05$ *** $p < .001$

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는 역할과 개인의 분리로 매개될 것이라는 가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역할수용을 하게 되면 공감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역할을 수용함으로써 역할과 개인이 분리되고 그것에 의해 공감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논 의

타인을 공감하는 능력은 상담전문직에 필수적인 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 다양한 능력에 기여한다. 공감능력은 관계형성의 기초가 되고, 스트레스 대처와 갈등해결에 기여한다. 따라서 공감은 중요한 자아강도의 핵심적 목록이며, 현실검증, 지능, 창의력과 맞먹는 가치가 있으며, 정서적 건강의 예방과 유지에 중요한 능력이다(Kohut, 1977).

본 연구 결과, 역할수용처치 집단이 역할수용무처치 집단에 비해 공감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할수용이 공감을 향상시킬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량에서도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역할수용처치집단이 역할수용무처치 집단에 비해 집단내 정보회상 오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할수용이 역할과 개인을 분리해 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효과가 역할과 개인의 분리에 의해서 매개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한 결과, 역할과 개인의 분리지표인 집단내 오류량을 통제했을 때 역할수용에 따른 효과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는 역할과 개인의 분리가 역할수용과 공감적 반응간의 매개변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역할수용은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고,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으로, 이자(二者)관계에서 역할수용 능력은 관계가 발달함에 따라 변할 수 있다고 한다. 관계의 초기 단계에서 역할수용 능력은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위해 사용된 의식적인 전략에 기초한다. 그러나 관계의 후기에 역할수용 능력은 상대방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의 결과가 될 수 있다. 아내의 역할수용 능력은 남편과의 관계 적응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남편의 역할수용 능력은 아내의 결혼 적응 수준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한다. 정적인 상관관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자관계에서 역할수용 능력은 배우자의 요구, 관심, 바람에 민감한 지표가 되며 따라서 결혼 만족도와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자관계 역할수용 능력은 치료자와 내담자간에 일어나는 상호작용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내담자의 관점에서의 인지적 이해는 치료의 결과와 정적으로 상관되며, 내담자에 대한 치료자의 느낌과도 정적인 관계가 있을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상담자의 역할수용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은 치료동맹과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며, 치료자에 대한 내담자의 느낌과도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Long, 1990).

Polanyi(1966)는 동굴 속을 탐색하는 사람에 대한 은유에서 개인의 역할이나 사회적 입장이 문제를 보는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 사람이 깜깜한 동굴 안에서 막대기를 가지고 발 밑을 더듬는다고 하자. 처음에는 손에 잡고 있는 막대기가 의식된다. 손바닥과 손가락에 막대기에 대한 감촉이 의식된다. 그러나 막대기를 가지고 동굴을 탐색하면서 막대기에 대한 의식보다 막대기가 벽이나 땅에 닿았을 때에 오는 느낌이 의식된다. 이렇게 막

대기에 대한 의식이 차츰 막대기를 통해서 경험되는 동굴의 모습에 대한 의식으로 바뀌게 되면 막대기는 차츰 나의 일부가 되어간다. 막대기를 가지고 동굴을 탐색하는 행위가 나를 도구로 해서 세상을 인식하는 행위로 되어간다. 이와 같은 인식에서 의식의 대상은 항상 동굴이 된다. 인식의 주체인 나, 즉 막대기는 의식되지 않는다. 따라서 막대기를 통해서 탐지된 동굴에 대한 인식이 절대화된다. 막대기가 도구가 되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치 동굴이 절대적으로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 여기서 한 사람은 긴 막대기를 가졌고 다른 사람은 짧은 막대기를 가졌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들은 자신이 쥐고 있는 막대기의 길이를 모른다고 하자. 이 같은 상황에서 동굴의 모습은 막대기의 종류에 의해서 판단될 것이다. 짧은 막대기를 쥔 사람은 앞이 내리막길이라고 생각할 것이며, 긴 막대기를 쥔 사람은 그것이 오르막이라고 판단할 것이다. 여기서 개인이 의식하지 못하는 막대기를 개인의 역할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타인이해에서 사람들의 인식의 틀은 사회범주이다.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적 범주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정확히 말하면 사회적 범주나 범주의 목표 또는 기대이다. 사람들의 자신이 속한 사회집단이나 범주의 목표를 막대기로 삼아 세상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범주를 통해 세상이나 사람을 인식하는지 잘 알지 못한다. 즉 자기 자신과 상대방의 인식의 틀을 인식할 수 없다.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인식이 절대화되는데서 비롯된다.

이수원(1993)은 이와 같은 인식의 절대화에 의한 현상을 사회적 자아중심성으로 설명하였다. 그에 따르면 상대방의 역할에서 비롯된 행동을 개인에서 비롯된 행동으로 잘못 지각하는

사회적 자아중심성이 상대에 대한 지각의 오류를 가져오는 주요 변인이다.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적 자아중심성으로부터 벗어나는데 중요한 기제 중의 하나가 역할수용임이 확인되었다.

역할수용은 개인의 자아정체를 사회정체에서 개인정체로 바꾸어 준다. 개인의 자아정체가 이렇게 개인정체로 동일시되면서 세상을 인식하는 그의 인식의 틀도 바뀌게 된다. 역할수용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의 하나는 이렇게 지각자로 하여금 그 동안 세상을 지각할 때 '도구'로 사용했던 인식의 틀, 즉 자기의 사회정체를 인식의 대상으로 대상화하여 이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역할수용을 통해서 자기의 사회정체를 반성적으로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자기와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각자가 처한 역할의 이해관계에 구속되어 얻어진 것임을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생각했던 상대방의 주장이 모두 '절대적인 것'들이 아니며 주어진 인식의 틀에서 비롯된 '상대적인 것'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역할수용을 거쳐서 나타나는 이와 같은 인식의 전환, 즉 절대화된 인식에서 상대화된 인식으로의 전환은 인식의 지평이 새롭게 탈바꿈하는 인식에서의 혁명이라고 볼 수 있다(이수원, 1991).

이상과 같은 전반적인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상담장면에서 공감을 일으키려면 개인과 역할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담장면에서 '상담자', '내담자'로 역할을 구분하고 그렇게 명명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 대한 지각을 다르게 하여 공감을 저해할 수 있다. 즉 상담자가 자신을 '상담자'라는 역할에 동일시하게 되면 내담자도 '내담자' 즉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 고정관념으로 판단하

게 되며 이러한 고정관념으로 인해 내담자를 그의 특성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공감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역할수용은 역할과 개인을 분리해서 지각하도록 만드는 기제이다(이수원, 1991). 타인의 역할을 수행해 봄으로써 그의 행동이 그의 역할에서 비롯된 것이지 개인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 즉, 타인 지각에서 역할과 개인을 분리해서 지각하도록 만든다. 역할수용의 이와 같은 기능은 인간관계에서의 만남을 '역할' 대 '역할'의 만남에서 '개인' 대 '개인'의 만남으로 바꾸어준다고 볼 수 있다. 그 동안 두 사람 사이의 개인적 만남을 가로막고 있었던 '역할'을 제거함으로써 이들간의 진정한 인간적 만남 즉, '개인' 대 '개인'의 만남을 실현시켜 주는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공감의 과정을 역할수용을 통한 역할과 개인의 분리라는 사회심리학적 틀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상담의 과정에서 검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공감의 인지적 과정으로서의 역할수용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즉 공감의 과정을 거쳐서 나타난 공감된 정서(empathic emotion)를 다루지 못하고, 지적 공감(intellectual empathy)을 공감이라 정의하고 이 공감의 핵심요인으로서 역할수용을 가정하고 이 역할수용이 왜 공감을 가져오는지를 역할과 개인의 분리로 설명하였기 때문에 보통 상담장면에서 말하는 공감과는 다소 거리감 있게 들릴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역할과 개인의 분리의 지표가 사회심리학적 지표인 정보회상오류량으로 실험상황에서의 집단간, 집단내 오류량으로 측정하였다는 점도 많은 한계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상담장면에서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측정도구로 검증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적인 상황에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공감의 과정을 검증하려고 한 점이다. 실제 상담장면에서의 상담자와 내담자를 대상으로 검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반화의 한계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서 미, 이수원 (1996). 타인에 대한 범주주도적 처리가 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 심리학회지 : 상담과 심리치료*, 8권, 1호, 47-64.
- 이수원 (1993). 사회적 갈등의 인지적 기제 : 사회적 자아중심성. *한국 심리학회지 : 사회*, 7권, 2호, 1-23.
- 이수원, 이해경 (1991). 역할과 개인의 분리 : 역할수용의 한 기제. *대학생활연구*, 한양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9집, 81-109.
- 이희경, 송수민, 이수원 (1992).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기대와 공감. *교육논총*, 5, 83-104.
- 하정희 (1998). 상담자와 내담자의 역할범주화가 공감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llport (1953). *The nature of prejudice*. Garden City, NY : Doubleday Anchor.
- Barknam, M. & Shapiro, D. A. (1986). Counselor verbal response mode & experience empathy.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3, 3-10.
- Barrett-Lennard, G. F. (1981). The empathy scale : Reinment of a nuclear concep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8, 91-100.
- Carkhuff, R. R. (1969). *Helping and human relations* (Volume one). New York : Holf, Rinebart, and Winston.
- Chandler, M. J. (1974). Accurate and accidental empathy. The concept of empathy : Band between cognition and social behavior.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New Orleans.
- Duan, C. & Hill, C.E.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Personality*, 43, 261-274.
- Flavell, J.H., Botkin, P.I., Fry, C.L., Jr., Wright, J.W., & Jarvis, P.E. (1968). *The development of role taking and communication skills in children*. New York : Wiley.
- Gladstein, G. A. (1977). Empathy and counseling outcome : An empirical and conceptual review. *The Counseling Psychologist*, 6(4), 70-79.
- Gladstein, G. A. (1983). Understanding empathy : Inte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67-482.
- Gladstein, G. A. (1987). Counselor empathy and client outcome. In G. A. Gladstein & associates(Eds.), *Empathy and counseling: Exploration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Iannotti, R. J. (1978). Effect of role-taking experience on role-taking, empathy, altruism and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4, 119-124.
- Jude, C. M. & Park, B. (1988). Out-group homogeneity : Judgements of variability at the individual and group leve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3, 1-13.
- Kohut, H. (1977). *The restoration of the self*. New York : International University Press.
- Lambert, M. J., Dejulio, S. S., & Stein, D. M.

- (1978).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Process, outcome,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and recommendations for future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5, 467-489.
- Linville, P. W., Fisher, G. W., & Salovey, P. (1989). Perceived distributions of the characteristics of ingroup and outgroup members: Empirical evidence and a computer sim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65-188.
- Mead, G. H. (1934). *Mind, self and society*.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oore, B. S. (1990). The origins and development of empathy, *Motivation and Emotion*, 14, 15-80.
- Parloff, M., Wascow, I., & Wolfe, B. (1978).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s.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3rd ed.). NY : John Wiley & Sons.
- Polanyi, M. (1966). *The tacit dimension*. Gardin City, New York : Doubleday.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for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1, 95-103.
- Rogers, C. (1975). Empathic : An unappreciated way of being. *Counseling Psychologist*, 5(2), 2-10.
- Selman, R. L. (1971). The Relation of role-taking to the development of moral judgement in children. *Children Development*, 42, 79-91.
- Sexton, T. L., & Whiston, S. C. (1994). The status of the counseling relationship: An empirical review.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research directions. *The Counseling Psychologist*, 22(1), 6-78.
- Tajfel, H. (1959). Quantitative judgment of in social perception.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50, 16-29.
- Taylor, S. E., Fiske, S. T., Etcoff, N. L., & Ruderman, A. J. (1978). Categorical and contextual bases of person memory and stereotyp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778-793.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 Aldine.
- Turner, J. C. (1985). Social categorization and the self-concept: A social cognitive theory of group behavior, in E.J. Lawler(Ed.). *Advances in Group Processes : Theory and Research*, Vol. 2, Greenwich, Conn.: JAI Press.

Effects of Role Taking on Empathy

Hee-Kyung Lee

Department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Jae-Hwan Kim

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Hanyang Universit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ole taking on empathy. Results showed that role-taking treatment group was higher in empathy than role-taking non treatment group. Also by using information recall error and by using conformity as a differentiation measure of role and person, we examined the effect of role-taking treatment on differentiation of role and person. Role-taking treatment group showed lower intragroup information recall error than role-taking non treatment group. Although students were given the position supporting the excluder on the opinion of school bullying phenomena, role taking treatment group conformed less than role taking non treatment group.

Also, we investigated whether the differentiation of role and person mediates the effect of role-taking on empathy. When the intragroup information recall error used as the differentiation measure of role and person, the main effect of role taking treatment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

This result showed that the effects of role-taking on empathy was mediated by differentiation of role and person. In other words, it was not the role taking itself, but the differentiation of role and person in role taking that increased empathy.